

늘 진심으로
광진과 함께

2 추미애

“비례대표를 받으시오”

— 김대중 —



정치에 입문할 때가 생각납니다.
판사였던 제게 김대중 총재가 정치를
함께 하자고 권했습니다.
결단을 한 제게 김대중 총재는 고맙다며
비례대표의 특혜를 주고자 했지만
저는 사양하고 이곳 광진에서 정치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보다 내 선거구민과 하나가 되라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지지자로서의 국민에 대해서는 그 뜻을 잘 받아들이야 하고
그런뒤에 전 국민과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세탁소집 둘째딸 추미애

대구에서 태어난 저 추미애는 세탁소집 둘째딸입니다.
제가 법복을 벗고 이곳 광진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하자
‘세탁소집 둘째딸이 부패한 정치판을 세탁하러 왔다’고 말씀들 하였습니다.
영국병을 고치고 영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영국최초의 여성총리 대처가
구멍가게 둘째딸이라는 점이 저와 흡사한 까닭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대처처럼 국가에 공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광진 주민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서울의 지역구에 유일한 도전이었고
저의 진심을 알아준 광진주민들은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서로 진심이 통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선거구민을 위하는 일,
나아가 국민을 받들고 국가에 공헌하는 일에
저의 정치적 소명을 다 하겠습니다.
광진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장관을 맡아주시오”

— 노무현 —

2004년 미국 유학을 가 있을 때,
하루는 김한길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뉴욕까지 날아온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낸 특사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추미애에게 환경부장관을
맡아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장관은 직업이 아닙니다.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인데
제게는 저대로의 정치적입장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혼신을 다했지만 분당이 되자 끝까
지 민주당을 사수한 추미애는 통합
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장관직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법무부 · 통일부장관 등 제의가 있었습니다.

정치입문 동기들이 열린우리당으로 갔던 그때처럼 국민의당으로
가버린 오늘날에도 추미애는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정통야당의
혈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미애의 통합의 소신, 물려서지 않는 진심입니다.

노무현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언급까지 한 추미애,
장관직보다 정치 소신과 원칙을 지키다

“호텔 할인권을 주든지 하라”

- 이견희 -

會長 指示事項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받는 사람(추미애 등)에게 주면
부담없지 않을까?

2007년 10월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엄
청난 사실을 폭로했
습니다.

삼성그룹이 정치권과 검찰, 국세청 등에 지속적으로 돈을 뿌려 인맥을 관리하고 로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폭로된 삼성 내부문건에는 추미애 관련 이견희 회장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바로 사실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이 추미애에게 16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인 2000년도에 골프백 하나 가득 엄청난 액수의 현금을 건넸으나 받지 않고 돌려 보내자 다른 로비 방법이라도 찾아보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물론 호텔 할인권도 전달되지 않았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추미애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미애의 마음,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진심입니다.



OhmuNews

이견희의 뭉치돈을 거절한 삼성내부 문건이 폭로되면서
유명해진 깨끗한 정치인 추미애

“제가 책임지지요”

— 추미애 —



100만 해고대란 추위원장이 책임질 겁니까?

“제가 책임지지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추미애는 100만 해고대란을 운운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조건을 2년간 계속근무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여당과 맞섰습니다.

추미애는 끝까지 싸워 약자인 비정규직 국민을 지켜냈습니다. 정규직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살려냈고 100만 해고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추미애는 국제적 노동기준인 복수노조를 도입하기로 하고 13년간 시행이 미뤄졌던 노동법에 대해 중재안을 만들어 시행을 관철시킴으로써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우선한 결단이었으나 당은 일부의 반발을 고려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 편에서 일하다 받은 것이었으므로 벌이 아니라 오히려 상으로 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노조기업 삼성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비정규직도 스스로 노조를 만들게 되어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미애의 원칙, 국민을 위해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진심입니다.

인기드라마 '송곳'처럼 힘 없는 비정규직도,
재벌 대기업 삼성에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한 추미애

“추미애는 늘 광진의 편에서 진심을 다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17대 국회에 낙선을 하자 동부지법 이전이 바로 결정되었습니다.
추미애가 낙선을 하지 않았다면 지켜낼 수 있었을 거라고 당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는 더 발전된 광진의 미래를 위해 서울시장, 광진구청장과 함께 광진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왔습니다.



16대 국회시 법원 행정처장(손지열)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 낸 추미애의원



박원순시장과 추미애의원은 지난 2월15일 시장 집무실에서 동부법원 부지개발 및 광진 맘 센터 건립건등 광진구 미래 청사진을 끝장 토론 후 확정 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의원은 “지금까지 상의한 도시개발과 복지시설 및 자양 한양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착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 했으며
**박시장은 “제가 추의원님 사업은 1순위로 추진하겠다.
백년에 하실 일 4년에 다하신거다”** 라며 화답했습니다.

추미애의 진심이 광진을 **확** 바꿉니다



구의역 일대에 KT 핵심계열사를 유치하고 광진구청을 이전해
통합 청사로 재건립, 행정·지식산업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 KT 핵심 계열사 와 IT업체들로 구성된 지식산업클러스트 조성
- 노후되고 협소한 구청사를 통합청사(구청사, 구의회, 보건소)로 만들겠습니다.
- 광진구 숙원사업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 방치된 우정사업센터 부지와 함께 주민편익시설로 개발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 동서울터미널을 현대화해 최고의 복합터미널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동부권 교통의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 강변역 주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간 지하화

1단계로 서울시교통계획에 들어갔고, 이제 2단계인 사업타당성과 자원조달 방안 연구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광진의 젊은 엄마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기동 구청장과 광진발전을 상의중인 추미애의원

**이전하는 광진구청사 자리에 광진 엄마들의 육아에서
취업까지 다 해결하는 광진 맘 센터(MOM CENTER)를 만듭니다**

“열나는 아이를 맡길 데 없어 발 동동 구르던 아이 셋 키운, 엄마 추미애가
육아를 해결해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광진의 불안한 베이비부머들을 위해



독섬 유원지역 일대에 전국 최대 규모로 베이비
부머의 인생이모작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5060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50+캠퍼스’를 유치했습니다

- ‘50+캠퍼스’는 지하 2층, 지상4층, 연면적 8,691㎡의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334억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타당성 용역 실사를 마쳤으며 설계 공모등을 통해
2017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광진의 청소년들을 위해

자양유수지 유희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실내체육관을 건립합니다

- 어린이도서관, 자료실, 열람실 등을 갖춘 도서관과 농구,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건립합니다.
- 현재 설계비 확보했으며 총 사업비 85억원으로 2018년 완공 예정입니다.

추미애의 진심이 대한민국을 **확** 바꿉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동반성장의 전도사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경제민주화를 이끄는 최적임자는 추미애라고 했습니다
재벌 대기업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직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모두 고르게 잘 사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권을 보호 강화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비정규직 차별금지, 동일임금 보장, 청년알바들의 권리보장을 추진합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에게는 세금감면 인센티브 지급(사회적 책임준비금제도)

대학생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대학등록금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기화균형선발

학부모님께 안심을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 100% 담당
- 국공립 어린이집 50%까지 단계적 확대 • 고등학교 의무교육 단계적 실시



어르신께 효도를 더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광진이 키울 대한민국의 미래 추미애



한국을 빛낸 여성 유관순,
한국을 빛낼 여성 추미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언론으로부터 '女 1호 국회의장'으로
주목받는 추미애
(문화일보)



걸어온 길

-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학과 졸업
- 연세대 경제학 석사, 건국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 춘천 · 인천 · 전주지법, 광주고등법원 판사
- 15, 16, 18, 19대 광진구를 국회의원(현)
- 새천년민주당 총재(김대중 대통령)비서실장
- 제 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대책특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위원장
(한일 위안부 협정 반대)

주요저서



물려서지 않는
진심(2013)



중산층 빚방
(2011)



한국의 내일을
말하다(2008)